

<대한민국은 변화 중>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뉴스만 보아도 우리 주변의 변화를 알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관공서 근처 식당에서는 3만 원 이상의 메뉴들이 사라지고, 법인카드의 무분별한 사용이 눈에 띄게 줄었다. 또 스승의 날이면 교탁 위에 가득했던 선물들도 이제는 사라졌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간간히 공직자들의 뇌물에 관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청탁금지법이 허울만 좋다든가 우리 사회의 표면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떤 법이든 그것이 시행된 후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이다. 나 역시 파출소 근무 중 부정청탁금지법이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느꼈던 일이 있다.

내가 일하는 파출소 관내에는 상습적으로 도박 신고가 들어오는 곳이 하나 있다. 그곳은 식당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속은 아주머니들의 사교도박의 장이었다.

2017년 3월,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처음으로 그곳에 출동했을 때엔, 그들을 꼭 잡겠다는 일념으로 현장을 찾아갔지만 현관문은 굳게 닫혀있었고 가게주인이 문을 열어주었을 때는 이미 도박하던 사람들이 뒷문으로 도망간 뒤라 단속을 하지 못했다. 경찰 생활 중 첫 도박신고였던지라 잡고 싶은 마음이 큰 만큼 아쉬움도 컸다. 그대로 돌아가기엔 아쉬워 건물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던 중 도망치기 위한 뒷문을 발견했고 다음 신고 때는 꼭 이 뒷문을 이용하여 검거하리라 다짐했다.

며칠 후 두 번째 신고가 들어왔다. 나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지난 출동에서 발견한 뒷문으로 향했으나 그런 나를 비웃듯이 그 문은 굳게 잠겨있었다. 하지만 식당 현관에서 선배가 문을 두드리자 내가 대기하고 있던 뒷문이 열리면서 열댓명의 사람들이 도망치기 위해 우르르 몰려나왔다.

‘웁거니! 드디어 도박으로 처벌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그들을 다시 안으로 몰아넣은 뒤 단속하려했던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선배는 그들의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별다른 이상이 없자 집으로 귀가시키는 것이었다.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는 나의 질문에 선배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후배 경찰관인 나에게 편잔을 주듯이 설명을 해주었다.

“도박죄는 도박하는 현장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 사람들이 도박을 했다는 정황이 있어도 처벌을 못하는 거야. 도박죄로 처벌하려면 그 사람들이 도박하는 현장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남겨야 돼.”

선배의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다면 도박죄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들이 도박하는 현장을 급습하지 않는다면 영영 잡지 못한다는 말인가? 하지만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그 또한 쉽지 않았다.

뾰족한 수가 없어 이런 저런 방법을 강구하던 나는 결국 ‘단속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그곳의 도박신고를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며칠간 고민하던 나는 ‘그래. 단속을 못한다면 신고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자!’ 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날 이후 나는 근무 때마다 그곳을 방문하였다. 주간근무건 야간근무건 그 식당에 불이 켜져 있으면 문을 두드렸다. 내가 하는 일은 딱히 없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전부였다. 처음에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뒷문으로 후다닥 도망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도박 현장을 발견하지 못하면 단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는지 도박판만 어딘가로 숨겨놓고 문을 열어 나를 맞이하며 탄생을 피우기 일쑤였다.

그다지 반기는 눈빛은 아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이들의 도박을 멈추게 하고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경찰로써의 소임이라고 생각했다. 매일같이 방문하면서 알게 된 점이 있는데, 그곳은 몇 년 전만 해도 번듯한 식당이었지만 장사가 잘 안 되어 가게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식당 주인의 거처가 식당 안에 있었기에 그곳은 동네 아주머니들의 모임의 장이 되었고 점차 사교도박의 장으로 변질되어간 것이다.

그들이 나의 방문에 무덤덤해져 갈 때쯤 가게 주인아주머니가 물어볼 게 있다며 가게 구석으로 나를 이끌었다. ‘뭘지?’ 하며 순진하게 아주머니를 따라 갔

던 나의 주머니에 두툼한 것이 쭈욱 하고 들어왔다.

‘이건 분명 돈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나를 뭐로 보고?’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면서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바로 주머니에 있던 돈을 빼내어 아주머니에게 돌려주었는데 족히 100만원은 되어 보이는 돈뭉치였다. 부글부글 끓는 속을 삭이면서 아주머니를 노려보고 말했다.

“뇌물죄로 입건되기 싫으시면 당장 집어넣으세요.”

단호하게 말하자 아주머니는 흠칫 놀라는 눈치였다.

돈을 돌려주고 도망치듯이 식당에서 나와 씩씩거리며 순찰차를 타는 나에게 선배가 무슨 일이냐며 물었다.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자 선배는 질책을 하며 말했다.

“내가 식당주인이라도 너한테 돈을 줬을 거다. 생각해봐라. 경찰관이 한 달 동안 매일같이 방문해서 귀찮게 하는데 네가 식당 주인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겠니?”

선배의 말을 듣고 나는 멍해졌다. 나의 행동을 되짚어 보니, 마치 영화 속에서 뇌물을 바라던 사람들이 헛기침을 하며 머뭇거리는데, 내가 제일 혐오하던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던 것이다. 식당 주인은 매일 같이 찾아오는 내가 원하던 것이 뇌물인 줄 알고 고심하면서 준비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잘했다”

질책하던 선배는 돌연 나를 칭찬하였다.

“호건아. 너는 오늘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거야.”

“네? 제가요?”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자 선배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그럼. 오늘 너는 뇌물이 여전히 통용된다는 한 사람의 인식을 바꾼 거지. 인식의 변화라는 건 한순간에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서서히 변해가는 거야. 요새 호프집이나, PC방, 음식점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니? 아마 금연법을 시행한 뒤로는 없을 거야. 너도 알겠지만 처음에 금연법을 시행했을 때 사람들의 반발이 심했었어. 그런데 지금은 어떠니? 자연스럽게 정착되어서 이젠 오히려 흡연이 가능한 가게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야.

아직 경찰이 옛날처럼 뇌물을 주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이 몇몇 있어. 작년에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변했지만 아직 정착되는 중이라 아무도 모르게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그러니 오늘 너의 행동은 투명한 사회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한 거나 다름없다는 거야.”

선배의 말을 들으니 뿌듯한 기분이 들면서 더 큰 사명감이 생겼다. 뇌물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보다 그들을 바꾸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제일선에 서있다.

며칠 뒤 나는 신호 위반을 하는 운전자를 적발해서 범칙금 처분을 하는데, 운전자가 내게 지갑에서 꺼낸 만 원 한 장을 건네며 한번만 봐달라는 간절한 눈빛을 보내왔다. 나는 차분하게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지금 신호위반을 무마하려고 뇌물죄를 범하시려고 합니다. 뇌물죄는 징역까지 되실 수도 있는데 계속 하시겠습니까?”

운전자는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돈을 도로 지갑에 집어넣었다.

이렇듯 아직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식당 주인이나 신호 위반을 한 운전자처럼 여전히 뇌물이 통용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를 비롯한 전국의 국민들이 변화시킬 것이다. 이제 식당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우지 않듯이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 사회도 자연스럽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오늘도 맑은 바 소임을 다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것이다.